



전라도 천년, 내일을 준비하자!

1018~2018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2015.10.8(목) 14:00

전북도청 중회의실

주최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주관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Jthink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도 천년, 내일을 준비하자!

1018~2018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2015.10.8(목) 14:00

전북도청 중회의실

주최  전라북도  전북도의회

주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도 천년, 내일을 준비하자!

□ 행사개요

- 일시 : 2015. 10. 8(목) 14:00~16:00
- 장소 : 전북도청 중회의실(3층)
- 주최 : 전라북도·전북도의회
- 주관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전북발전연구원
- 주제 : 전라도 천년(1018~2018), 내일을 준비하자!
- 전라개도 천년의 의미와 새로운 천년의 과제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개 회 (※사회:이동기 전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4:05~14:20	[축사] ① 심보균(전라북도 행정부지사) ② 김광수(전라북도의회 의장) [인사말] ① 김연근(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② 이성일(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③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14:20~14:40	[발제_1] 전라도, 천년의 역사 홍성덕(전주대학교 교수)	
14:40~15:00	[발제_2] 전라 개도(開道) 천년의 의미와 과제 장세길(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15:00~15:55	[종합토론] 좌장 : 하우봉(전북대학교 교수) 토론 : 김용만(전라북도 기획관) 송성환(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 이상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성원(전북일보 부국장) 최완규(전북문화재연구원 이사장) 한완수(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 허남주(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 ※토론은 가나다 순	
15:55~16:00	폐 회(※사회:이동기 전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축 사

고려 현종이 1000년 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당시 전주 일대의 강남도와 나주 일대의 해양도를 합쳐 전라도라 칭하기 이전부터, 이 땅 전라도는 한민족의 뿌리이자 중심이었습니다.



호남평야는 중국의 양쯔강 삼각주, 일본의 동북 지역, 베트남의 메콩강 삼각주, 자바의 동남부 지역 등과 함께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쌀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쌀문명에서 우리의 고유문화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 땅의 문화가 곧 한국문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는 마한의 땅으로 선사·고대사회부터 한반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식묘(발견된 것의 90%)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이해준 교수는 “마한문화는 북방의 고조선 중심 문화와 성격을 달리한다.

북방민족문화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한민족만의 고유한 전통을 형성하면서 중국과 교류를 모색할 정도로 성장하였다.”고 설명합니다.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1897년에 새로운 국호로서 ‘대한’(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그 연월으로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라도는 삼한 중 으뜸인 마

한의 중심입니다.

백제를 거쳐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바닷길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전라도는 동북아 국제교류 및 경제, 문화의 관문이자 다양한 문명이 융합된 선진문화의 발신지였습니다. 고려 무신정권의 경제적 배경, 삼별초의 항거거점, 고려와 조선시대의 조운항로 등 전라도 바닷길은 전라도가 국제교류와 경제의 핵심지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묘사화(1519년), 기축옥사(1589년) 이후 전라도 지식인들은 중앙 진출의 기회를 폐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란과 호란에 직면했을 때는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의병봉기와 충절을 표출하였습니다. 양란 이후에 사회모순이 극에 달할 때는 날카로운 비판적 식견과 개혁논의(호남실학)로 비판의 실천력을 갖춘 지성적 책무를 다하였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천년의 역사 동안 전라도가 절의와 저항의 실천력을 갖춘 한국정신의 본향이자, 비판적 실천력을 갖춘 인재의 고장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전라북도를 ‘한국 속의 한국’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의 중심인 전라도가 1000년을 맞이합니다. 세계적으로 1000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도시나 지역은 대대적인 기념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전라도 10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새로운 1000년을 위한 첫걸

음을 뺐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할 사업을 발굴해 실천해야 합니다. 그 일에 도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8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심 보 군

축 사

안녕하십니까?

천년고도 전라도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라도의 천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전라도의 위대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전라도‘개도천년’세미나는 2018년 개도천년을 앞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과 사업을 준비하는 매우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전라도는 고려 현종 9년(1018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라도로 명명된 이후 천년동안 동일한 권역에서 동일한 명칭을 유지해온 유일한 고장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까지 쌀 문화의 중심지이자 한반도 동북아 국제교류의 관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현대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의병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등 반외세 민중혁명이 일어난 한국 정신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불균형 정책과 정치적 소외로 인해 지역은 낙후되고 전라도 사람에 대한 인식 또한 좋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때 마침 전라도 개도 천년의 해인 2018년에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그동안의 역사와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떨쳐내고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오늘 전라도 개도천년 세미나는 문화관광 및 미래전략 전문가와 도의원들이 모여 국가차원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재차확인하고, 전라도 개도 천년 기념사업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입니다.

부디 이번 세미나에서 전라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줄 국가기념사업과 기념비적인 프로젝트 등을 제시하는 성과가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세미나를 축하드리며, 준비하느라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가슴에서 우러나는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8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 광 수

인사말

1018년 고려 현종 때,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딴 전라도가 등장했고, 이 ‘전라도’라는 행정구역 명칭이 사용된 지 천년이 되는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라도 천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며, 침체돼있는 전라도의 미래를 준비해 보자는 뜻에서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이면 새 천년이 열리는 해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조그마한 조직명칭도 바뀌는데, 단일 행정구역 명칭이 그토록 오래 쓰였다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라도는 한민족 전통의 발신지이며,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인 ‘마한’의 중심지였습니다. 다만, 현대국가이후 대한민국의 변방지역으로 낙인되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모멘텀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유래 깊은 천년고도를 국가기념사업으로 추진하여 ‘전라도’지역의 자긍심을 되찾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기회와 희망은 언제나 위기와 절망 위에서 꽃피운다고 하였습니다.
이 희망의 움직임을 앞장서 제시해주는 것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에서부터 시작하는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 나주와 호남을 넘어 진정한 ‘한국 속의 한국’으로 태동할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라도 천년’과 함께 새롭게 태동하는 전북발전연구원에 커다란 찬사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2015. 10. 8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 연 근

인 사 말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이성일입니다.

전라도 개도 천년의 해를 몇 해 앞두고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나온 천년 역사의 궤적을 성찰하고, 앞으로 전북이 그리고 전라도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진지한 고민과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라도의 현 주소는 천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옹색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전라도를 혐오하는 표현이 항간에 버젓이 나도는가 하면, 정치사회적으로는 구조적인 소외와 차별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개도 천년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그릇된 프레임을 깨고 새로운 천년을 모색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과 논의가 이어지길 바라며,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8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이 성 일

인 사 말

2018년이면 우리가 사는 이 땅 전라도가
개도 1,00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라도는 고려현종 1018년에 나라를 다섯
개의 도와 두 개의 계로 나누는 5도 양계
체제를 구축할 때 전주목과 나주목의 앞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4348년의 역사 속에서 전
라도는 유일하게 하나의 이름으로 1,00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라도 개도(開道) 1,000년이 되는 2018년을 새로운
1,000년의 시작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는 역사 속에 스스로를 비추
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한낱 미물인 미꾸라지도 천년이면 용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1,000년을 살아온 전라도는 새로운 1,000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
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전라도 1,00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전라도 1,000년을 준비하는 전라도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을 기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라도와 유사하게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베트남 하노이는 2010년 1,000년을 맞아 당시 국왕이 하노이로 천도할 때 내세웠던 ‘발전 대국 건설’이라는 모토를 21세기 베트남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천년의 영웅 기념물 설치,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로운 1,000년의 역사의 시작점을 과거 1,000년의 역사로부터 가져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렇듯 전라도 개도 1,000년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도에서 시작된 1,000년의 역사프로젝트가 향후 1,000년을 맞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신(新)지역플랜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전라도는 2018년 신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1,000년의 역사가 더 흘러 전라도 2000년이 되는 해에 후손들이 전라도를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전라도 개도 1,000년은 새로운 1,000년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재 신채호선생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2015. 10. 8

전북발전연구원장 강 현 직

주제발표1



전라도, 천년의 역사



홍성덕_ 전주대학교 교수

전라도, 천년의 역사

1018~2018 JEOLLADO

홍성덕_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목차

1 시작하는 말

- 전라도 _ 전통의 성립

2 전라도 천년 1018~2018

- 1018년 전라도 탄생
- 1000년을 지킨 이름
- 1000년을 지킨 역사

- 공간 _ 풍요와 편견
- 시간 _ 패배와 부활
- 인간 _ 변혁과 희망

3 천년의 기록, 연구

4 끝맺는 말

- 전라도 _ 전통성의 계승

- 전라감영 기록 보존
- 전라도 연구 필요성

전라도 _ 전통의 성립

- ❖ '전라도' = 전주(全州) + 나주(羅州)
- ❖ '전라도' = '호남'
- ❖ '호남/호서', '호남/영남' - 삼남지방의 상대적 비교성
- ❖ '반역의 땅' '배역의 땅' -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편견
- ❖ 전라북도·전라남도의 지역 분리
- ❖ 새로운 인식의 전환 - 과연 21세기 '전라도'는 무엇인가?
- ❖ 지역의 공감대 확장 - 패러다임의 전환, 긍정 인식의 추동



『고려사』지, 지리지 전라도

10도(강남도/해양도) 전라도

전라도 탄생

본래 백제의 땅으로, 의자왕 19년(659)에 신라 태종무열왕이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그 땅을 병합하였다. 경덕왕 때 전주와 무주(武州, 광주)의 두 도독부로 나누었으며, 진성왕 5년(891)에 서면도통(西面都統) 견훤이 옛 땅을 모두 장악하고 후백제왕을 칭하였으나 태조 19년(936)에 왕이 친히 정벌에 나서 승리했다.

성종 14년(995)에 전주·영주(瀛州, 고부)·순주(淳州, 순창)·마주(馬州, 금마) 등의 주현으로 **강남도(江南道)**를, 나주(羅州)·광주(光州)·정주(靜州, 영광)·승주(昇州)·패주(貝州, 보성)·담주(潭州, 담양)·낭주(朗州, 영암) 등의 주현으로 **해양도(海陽道)**를 삼았다. **현종 9년(1018)에 합쳐서 전라도로 하였다.** 관할하는 목(牧)이 2개, 부(府)가 2개, 군(郡)이 18개, 현(縣)이 82개이다.

『고려사』

10도(강남도/해양도) 전라도

마한54개국

백제

통일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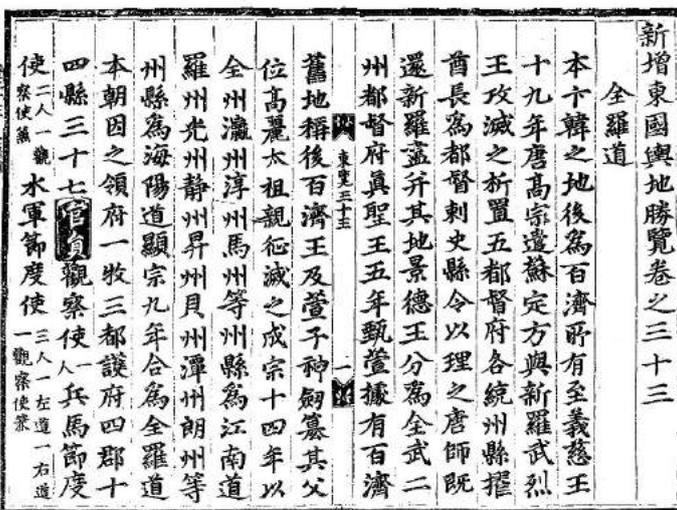
후백제

고려

995

1018

전라도 탄생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전라도

인조조(仁祖朝) 때에 전남도(全南道)로 고쳤다가 곧 옛 이름을 그대로 불렀고, 또 광남도(光南道)로 고쳤다가 곧 예전대로 불렀으며, 영종(英宗) 4년에 전광도(全光道)로 고쳤다가 13년에 예전대로 불렀다. 모두 56읍(邑)이다.

10도(강남도/해양도) 전라도

마한54개국

백제

통일신라

후백제

고려

995

1018

2

전라도 1000년, 1018~2018

‘호남’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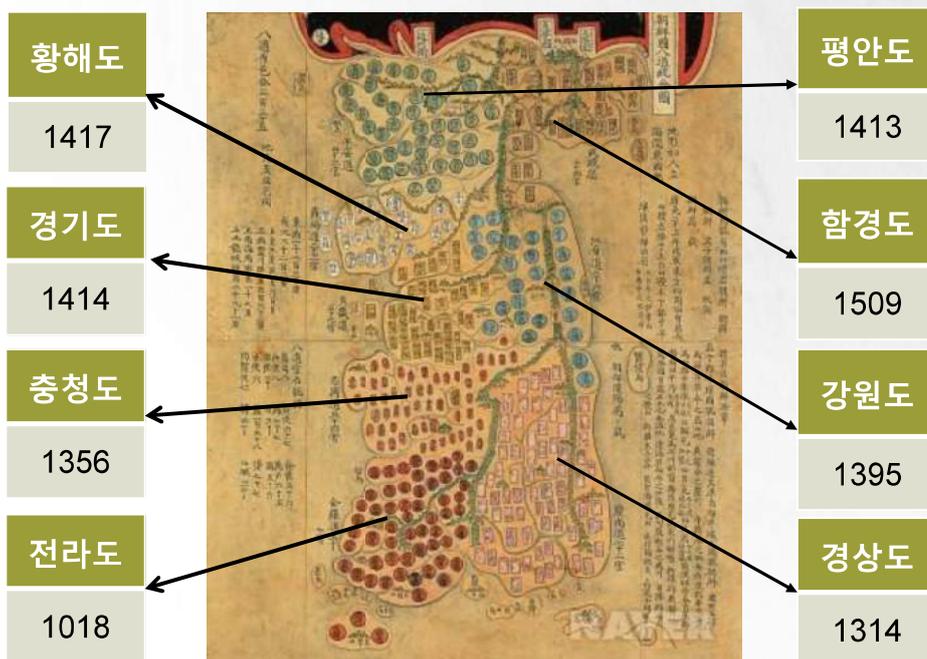
碧骨提湖，一名金提湖在郡南十五里 提長二千六百步湖周八十里 母岳象頭山之水皆會於此 三國時開創新羅元聖王時增築 高麗顯宗仁宗再重修 國中大提此與古阜郡訥提益山郡黃登提通稱爲三湖 南方之稱湖南湖西蓋以此也 後廢棄本朝太宗十五年 遣朴熙中興觀察使朴習重修灌溉極廣民無旱患 今提決湖固 『東國輿地志』(유형원, 1656) 金提郡 山川條

벽골제호, 일명 김제호라고 하며 군의 남쪽 15리에 있다. 제의 길이는 2600 보이고 호의 둘레는 80리이다. 모악 상두산의 물이 모두 여기에서 만난다. 삼국시대에 만들어 졌으며, 신라 원성왕 때 증축되었고, 고려 현종 인종 때 중수하였다. 나라 가운데에 큰 호는 이곳과 고부군 놀제, 익산군 황등제가 있는데 통칭 삼호라 하였다. 남쪽에 있어서 호남이라 칭하였고, 호서는 모두 이 때문이었다. 후에 폐하여졌으므로 본조(조선시대) 태종 15년 박희를 보내어 일으켰고 관찰사 박습이 관계를 중수하여 참으로 모든 백성들이 가뭄을 걱정하지 않았다. 지금 제는 헐렸고, 호는 말라버렸다.

1

전라도 1000년, 1018~2018

1000년을 지킨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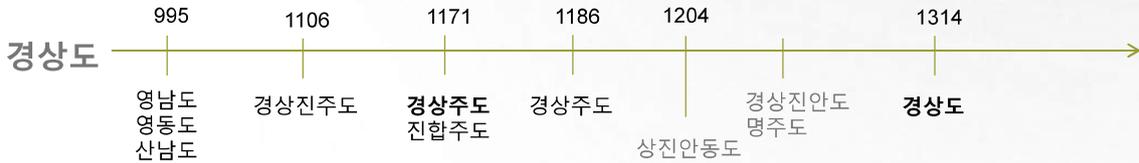
1

전라도 1000년, 1018~2018

경상도



성종 14년(995)에 전국을 10도로 나누면서, 상주가 관할하던 지역을 영남도로 하였고, 경주와 금주가 관할하던 지역을 영동도로 하였으며, 진주가 관할하던 지역을 산남도로 하였다. 예종 원년(1106)에 경상진주도라고 칭하였다. 명종 원년(1171)에 경상주도와 진합주도의 두 도로 나누었다가 16년(1186)에 경상주도로 하였다. 신종 7년(1204)에 상진안동도로 하였다가 그 후에 다시 경상진안도로 고쳤다. 고종 46년(1259)에 화주·등주·정주·장주의 네 주가 공고로 편입되자 도(道)의 평해·덕원·영덕·송생을 명주도(溟州道)에 예속시켰다. 총렬왕 16년(1290)에도 덕원·영덕·송생을 동계로 옮겨 소속시켰다. 충숙왕 원년(1314)에 경상도라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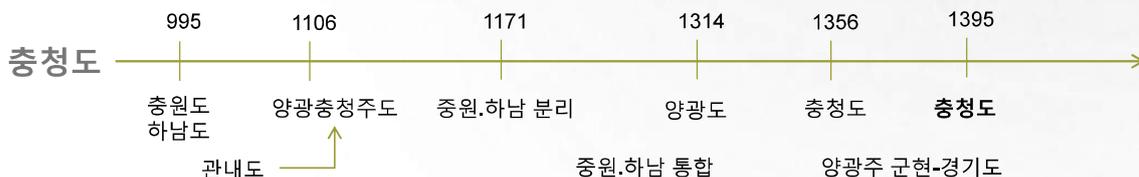
2

전라도 1000년, 1018~2018

충청도(양광도)



성종 14년(995)에 지역을 나누어 10도로 나누면서, 양주·광주 등의 주현은 관내도에 소속시켰고, 충주·청주 등의 주현은 충원도로 하였으며, 공주·운주 등의 주현은 하남도로 하였다. 예종 원년(1106)에 합하여 양광충청주도로 하였다. 명종 원년(1171)에 두 개의 도로 나누었다. 충숙왕 원년(1314)에 양광도로 정하였다. 공민왕 5년(1356)에 충청도로 하였다. 관할하는 경이 1개, 목이 3개, 부가 2개, 군이 27개, 현이 78개이다.



2

전라도 1000년, 1018~2018

1000년을 지킨 이름



2

전라도 1000년, 1018~2018

1000년을 지킨 이름



1000년을 지킨 역사

조선후기 전라도

1부(府) - 부윤 : 전주

4목(牧) - 목사 : 광주, 능주, 나주, 제주

7부(府) - 부사 : 남원, 장흥, 순천, 담양, 무주, 여산, 장성

11군(郡) - 군수 : 순창, 보성, 낙안, 익산, 고부, 영암, 영광, 진산, 금산, 진도, 김제

32현(縣) - 현령 : 창평, 용담, 임피, 만경, 금구

- 현감 : 남평, 광양, 구례, 곡성, 운봉, 강진, 옥과, 진안, 화순, 동복, 임실, 장수, 흥양, 용안, 함열, 부안, 함평, 고산, 태인, 옥구, 흥덕, 고창, 무장, 무안, 해암, 정읍, 대정, 정의

『전라감영지』18세기 후반



무등역사연구회, 『전라도 역사이야기』2013, 100쪽

1000년을 지킨 역사

운주사 천불천탑

고려 현종의 몽진

삼별초의 난

Dream

죽동의 난

황산대첩

전주성황신

목조와 자만동

Utopia

정몽주와 남고산성

조선의 건국

경기전 설치

태조이성계 어진

전주사고와 실록 보존

기축옥사

유형원, 실학의 비조

다산 실학을 집대성하다

약무호남
시무국가

죽어야 의병이다
호남의병

사람이 곧 하늘이다
동학농민혁명

한국 천주교 순교 일번지

광주학생운동
광주민주화운동

소작쟁의

平等
自由

忠

꿈, 희망

義

人
民



2 전라도 역사문화 특징

공간 _ 풍요와 편견

❖ 조선 후기 인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 천명

연도	인구수	한성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	출처
1648	1,531	96	81	174	432	425	54	55	146	69	증보문헌비고
1678	5,247	167	554	714	1,000	1,005	271	455	707	374	"
1753	7,299	174	642	931	1,193	1,662	391	540	1,268	498	"
1789	7,404	189	642	868	1,221	1,591	332	568	1,296	696	호구총수
1807	7,561	205	675	893	1,251	1,607	336	583	1,306	706	증보문헌비고
1852	6,919	204	673	881	1,068	1,536	325	673	869	692	"
1904	5,929	192	673	775	931	1,111	302	382	813	750	"
1907	9,782	199	869	1,142	1,448	2,333	628	901	1,289	973	"
1910	12,919	234	1,104	1,407	2,448	2,896	775	963	1,832	1,261	한국호구표

출처 : 신편 한국사 33, I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1 인구의 증가와 분포

2 전라도 역사문화 특징

공간 _ 풍요와 편견

❖ 조선 시대 각 도별 토지 규모

	1404년	1454년	1591년	1646년	1719년	1769년	1807년	1893년	1901년
경기도	140,142	207,119	141,970	21,839	101,256	51,007	52,107	41,446	68,249
충청도	223,090	236,300	252,503	124,625	255,208	123,861	120,833	102,700	133,146
전라도	③ 173,990	③ 277,388	① 442,189	① 200,437	① 377,159	② 199,220	① 204,740	① 202,320	① 251,684
경상도	234,629	301,147	315,026	189,574	336,778	199,527	201,533	186,699	218,501
황해도	90,922	104,772	106,832	44,238	128,834	69,824	68,289	76,130	87,258
평안도	6,648	308,751	153,009	47,561	90,804	83,507	84,902	86,030	104,636
강원도	59,989	65,916	34,831	8,256	44,051	11,408	11,569	10,402	20,255
함경도	3,271	130,413	63,831	46,806	61,243	62,489	66,545	52,360	101,382

무등역사연구회, 『전라도 역사이야기』2013, 135쪽

공간 _ 풍요와 편견

❖ 조선 후기 각 도별 전결수 및 인구수의 비율 대비표

	인조 24(1646)		숙종 46(1720)		정조 10(1786)		순조 3(1803)		순조 28(1828)	
	전 결	인 구	전 결	인 구	전 결	인 구	전 결	인 구	전 결	인 구
한성		6.3		3.5		2.7		2.7		
경기	3.2	5.3	7.3	8.2	7.7	8.7	6.8	8.9	6.3	8.2
충청	18.2	11.4	18.3	14.3	17.8	11.8	15.1	11.8	17.9	14.2
전라	29.2	28.2	27.1	16.2	24.3	16.6	25.6	16.6	23.7	14.9
경상	27.7	27.8	24.2	23.8	23.4	21.6	24.8	21.3	23.5	23.7
강원	1.2	3.5	2.9	4.1	2.8	4.4	1.4	4.5	2.9	5.6
황해	6.5	3.6	9.3	6.7	9.0	7.7	8.7	7.7	9.2	8.7
평안	7.0	9.5	6.5	15.8	7.4	17.5	9.9	17.3	8.3	12.8
합경	7.1	4.5	4.4	7.5	7.6	9.1	7.7	9.3	8.2	11.7
총수	685,300① 100%	1,531,355② 100%	1,391,700③ 100%	6,840,000④ 100%	1,436,400⑤ 100%	7,356,783⑥ 100%	845,900⑦ 100%	7,561,000⑧ 100%	1,435,400⑨ 100%	6,099,700⑩ 100%

출처 : 신편 한국사 33, I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1 인구의 증가와 분포

공간 _ 풍요와 편견

❖ 호남 편견의 시작



『고려사』 세가 태조26년 4월

차령이남 및 금강의 바깥은 그 지리적인 형세가 모두 배역의 방향으로 달리므로 그 지역의 인심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그 아래 쪽 지역민들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 국척과 혼인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혹은 통합 당한 원한을 품고 국왕이 거동하는 길을 범하여 난을 일으키려 할 것이니.... 비록 그 양민이라 할지라도 벼슬자리에 두어 일을 보도록 하지 아니함이 마땅하다.

공간 _ 풍요와 편견

❖ 호남 편견의 시작



『성호사설』 권3, 천지문 兩河水勢

공간 _ 풍요와 편견

산수를 보면 풍기의 모이고 흠어짐을 아는 것이니, 산세가 겹겹으로 돌아 옹호해 주었다면 물이 어찌 흠어져 흐를 수가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산맥이 백두산으로부터 서남방으로 달려 두류산에 이르러 전라·경상 양도의 경계선이 되었다.

그리고 물은 황지(黃池)에서 남으로 흘러 낙동강(洛東江)이 되었는데, 산이 동해 가로 연달아 바다를 막아 주었고, 두류산의 지맥이 또 동으로 달려서 여러 고을 물이 날날이 합류가 되어 김해(金海)와 동래(東萊) 사이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풍기가 모이어졌고 흠어지지 않았으니, 옛날 풍속이 아직도 남아 있고 명현이 배출하여 우리나라 인재의 부고가 되었다. 그리고 태백산 아래와 안동(安東)·예안(禮安) 사이에는 도처에 명당이 열렸으니, 다른 날 국가에 변란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곳을 함입게 될 것이다.

전라도로 논한다면 1도의 물이 무등산(無等山) 동쪽의 물은 모두 동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서쪽의 물은 모두 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며, 전주(全州) 서쪽의 물은 모두 서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덕유산 이북의 물은 모두 북으로 흘러 금강(錦江)과 합류가 되니, 비유컨대, 머리를 풀어 사방에 흠어진 것과 같아 국면(局面)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재주와 덕망 있는 자가 드물게 나오니 사대부로서는 거지(居地)로 삼을 곳이 못된다. 이는 차령(車嶺) 이북의 산수가 배역(背逆)한 정도 뿐만이 아니다. - 성호 이익 『성호사설』 권3

3

전라도 역사문화 특징

시간 _ 패배와 부활



광주 신창동 유적

초기 철기시대(기원전 2~1세기)의 늪과 못터, 토기 가마터, 배수시설, 집자리, 독무덤 등 고대 농경 문화 생활과 관련된 유적

신창동 출토 유물



신창동 출토 현악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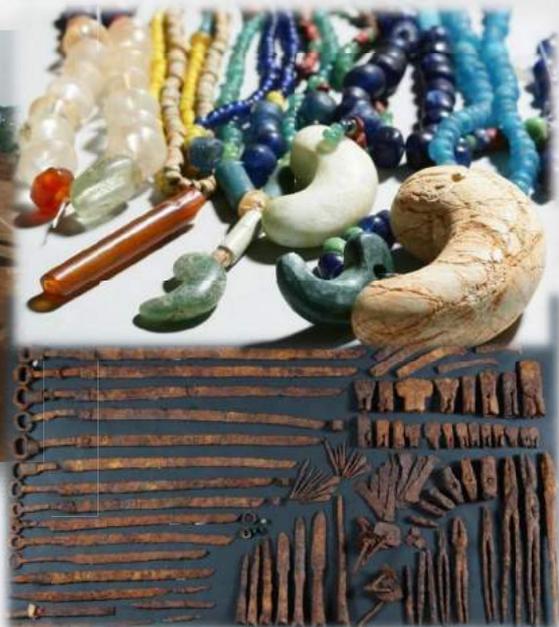
전라도 역사문화 특징

시간 _ 패배와 부활



완주 상운리 유적

기원전 100년~기원후 500년 사이의 유구
마한 최대 규모의 분묘 유적
분구묘 30기, 목관묘 35기, 옹관묘 5기



출토 유물

신창동 출토 현악기

3

전라도 역사문화 특징

시간 _ 패배와 부활



"정개"명 편운화상부도 탁본, 후백제 견훤왕 19년(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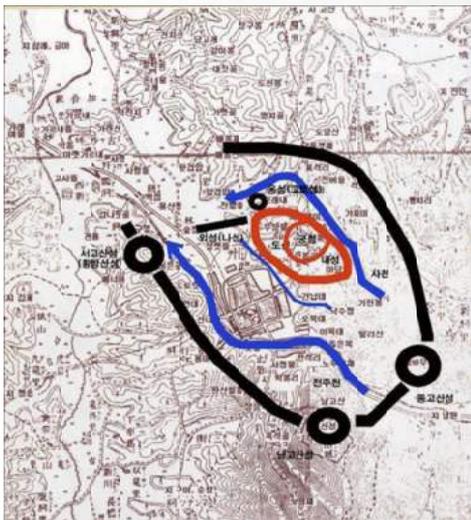
"전주성"이라 새겨진 연꽃무늬 수막새



3

전라도 역사문화 특징

시간 _ 패배와 부활



후백제 도성



동고산성

3

전라도 역사문화 특징

인간 _ 변혁과 희망



윤주사

윤주사는 천불산에 있으며 좌우의 산등성이에 있는 석불과 석탑이 각각 1천 개이다. 또 석실에 2개의 석불이 서로 등지고 앉았다.

고려초기 창건
고려중기 천불천탑 조성(13~14C)



3

전라도 역사문화 특징

인간 _ 변혁과 희망



진안 죽도

"천하는 공물(公物)로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없다" - '천하공물설(天下公物說)'
"누구를 섬기든 임금의 것이 아니겠는가" - 하사비군론(何事非君論)



3

전라도 역사문화 특징

인간 _ 변혁과 희망



반계수록



다산초당



다산기념관



반계서당



목민심서

3

전라도 역사문화 특징

인간 _ 변혁과 희망



사발통문

동학농민혁명(1894)



전라감영 관련 기록

『각사등록』 수록 98종 + 미수록 기록 171종 = 총 269종

시기적으로는

- ✓ 17세기 기록 『전라도무주현적상산성조진성책』(1632) 등 4종,
- ✓ 18세기 자료 『남원현공사』 등 4종
- ✓ 19세기 자료 52종
 - 19세기 후반 자료 45종 -『각사등록』 감영기록의 46%
- ✓ 1900년~1910년 자료 2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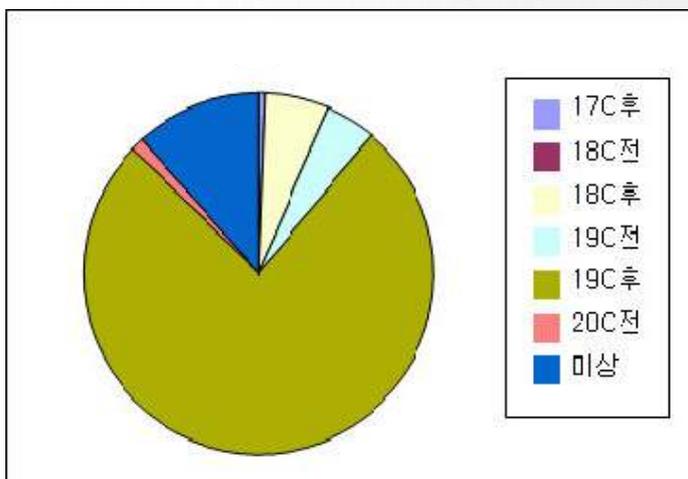
내용적으로는

- ✓ 경제관련 23종, 군사관련 11종, 사법관련 9종, 행정관련 55종

※ 전라감영기록의 시기적 분포는 19세기 후반 이후(총 68종 69%)

전라감영 관련 기록

『각사등록』에 정서된 98종 + 미수록 기록 171종 = 총 269종



1651~1700	1
1701~1750	0
1751~1800	10
1801~1850	8
1851~1900	130
1901~1950	2
未詳	20
합계	171

※ 경제관련 기록 총 121종으로 71%, 행정 26종, 군사사법 10종

전라감영 관련 기록 수록 내용

『각사등록』에 수록된 전라감영 자료의 주요 수록 내용

- 농형(農形, 도내 농사형편)과 강우량
- 경기전(慶基殿) 제사와 제관 명단
- 각종 문·무과 합격자 명단
- 관할 지방관원의 부임과 포폄(褒貶)
- 화재와 수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 세곡(稅穀)과 진상물품
- 관할 군현의 각종 보고서
- 순력(巡歷)과 백성들의 청원
- 살인사건과 관련된 죄인들의 신문과 검안(檢案)

전라감영 관련 기록 특징

- 조선시대 농법과 농사 관리 및 농업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 조선시대 지방 행정 체계 및 운영구조 파악
- 전근대~근대 이행 과정의 공문서 특징 이해
- 각종 소송관련 문서 - 지역 여론 형성과 민의 상달 구조 이해
- 근대 이행기 전라감영의 지방행정체계 및 대응 구조 파악
- 전라도 의병 및 대민 수습 과정 - 식민지 지배체제 구축

전라감영 연구의 필요성

- ❖ 전라도, 호남에 대한 편견이 여전하지만 '전라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
- ❖ 전라감영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주제로 전라도에 대한 연구의 출발이기도 하다.
- ❖ 전남지역에서 주도하는 '호남학' 연구는 공간적으로 지역 중심이며, 전라도 전체를 담아내고 있지 않다.
- ❖ 기초단위의 지역 정체성을 언급하지 전에 광역단위의 지역 정체성이 배경에 놓여야 한다. - 천년 동안 전라도는 하나의 공간.행정단위로 존재해 왔다.

전라도 _ 전통의 계승

- ❖ 개도(開道) 1000년 !
 -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고쳐야 할 것?
- ❖ 천년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호남학'이 아닌 '전라도학'의 정립
 - 전라도 중심 수부로서 '전라북도 전주' 위상 제고
- ❖ 전라도 정신 -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확장
 - 패배의식의 '트라우마'를 탈피
 - 한국사회를 추동해 온 개혁과 변혁의 정신
- ❖ 전라감영 복원 : 새로운 천년의 전라도 비전 수립
 - 옛 천년을 딛고 다가 올 천년을 준비



감사합니다.



주제발표2



전라 개도천년의 의미와 과제



장세길 _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開道 1000년 의미와 과제

장세길_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2015_10_08

목차

I. 개도 천년의 의미와 국가 사업의 당위성	04
II.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0
III. 국가기념사업(예시)	16
IV. 그랜드디자인프로젝트 (예시)	21

開道1000년 (101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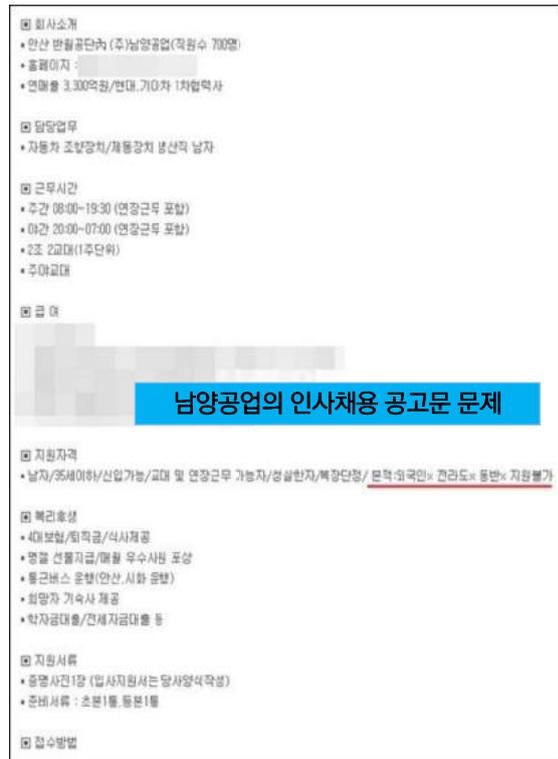
1 개도 천년의 의미와 국가 사업의 당위성

1

4

전라도 혐오증?

“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지역감정'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모두 전라도 사람을 싫어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편집증' 단계에 이른 '질병'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지역감정' 이라는 말 대신 '전라도 혐오증' 이라는 단어를 써야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본다. ”
 <유시민, 1997, 『1997 대선게임의 법칙』, 돌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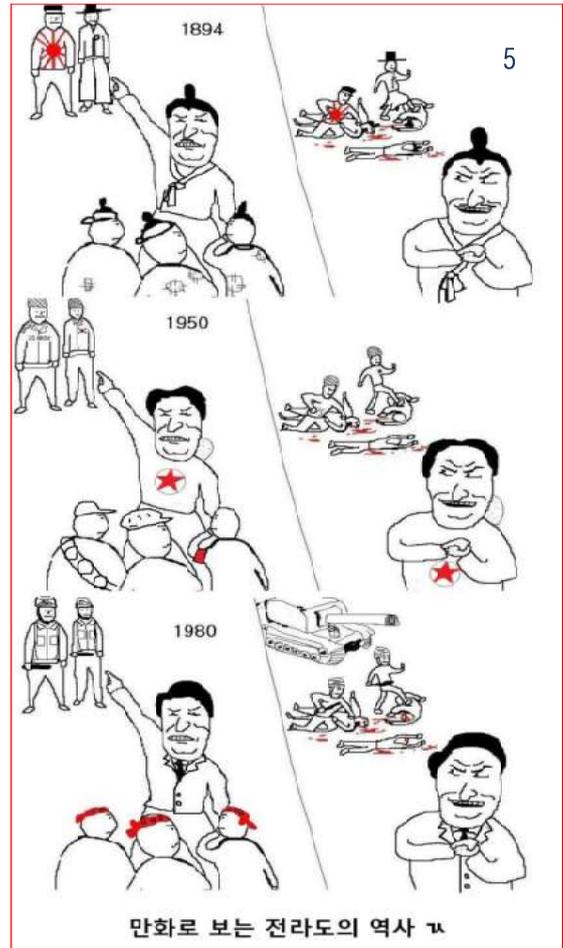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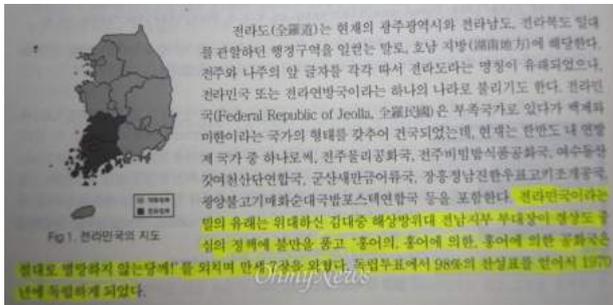


전라도 혐오증 사례

구글 이미지, 전라도 검색했을 때
확인되는 전라도 폼하 이미지



근 시절 봤던 전라디언들 특징



2

전라도 혐오증, 국가주도 불균형 근대화의 결과

- 전라도를 차별하는 논리를 만들고자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訓要十條) 중 제8조와 이중환의 택리지(擇地記)를 찾아내 제시하고 있으나, 근대화 이후 형성된 전라도 혐오증은 전라도 외 지역사람에 의한 낙인찍기에 불과
- 역사학자 이희권은 훈요십조가 고려시기 신라계통의 정치세력에 의해 날조 첨가됐으며, 산천배역(背逆)설을 악용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물이라고 설명

- 첫째, 훈요십조 중 제8조는 왕건 태조가 고려 초기에 반(反)고려적인 성향이 강했던 차현 이남 공주강 이북 지역인물들의 등용을 억제하고자 제정한 것
- 둘째, 제8조 상당부분은 현종 때에 새롭게 날조 첨가됐으며, 이를 주도한 세력은 신라계통 정치세력들, 훈요십조는 8조의 주요부분이 개작된 이후에 서상에 공개되면서 태조가 금강 이남의 호서, 호남사람의 등용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조항으로 이해되고 있음
- 셋째, 조선 시기에 금강 이남의 신천배역(背逆)설이 정감록, 택리지에서 논의되면서 전라도 사람의 기피와 편견이 확대됐으나, 이것은 전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와 역사적 편견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풍수지리설을 기탁(託託)하여 특정 지역 사람들을 배제하려 만든 담론에 불과
- 넷째, 고려 태조가 등용을 제한하려 했던 지역이 차현 이남 공주강 이북의 극히 제한된 지역이었으며, 금강 이남이 아니었음을 고려시기에 이들 지역의 인물들이 등용된 실태에서 확인 (이희권 (2011: 32-33))



전라도인의 낙인찍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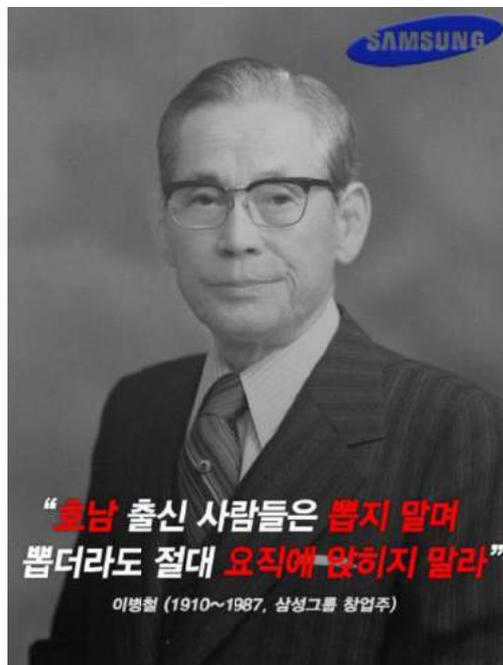
구글 이미지, 전라도 검색에 나타나는
전라도인의 낙인찍기에 활용되는 사례들

(자료: 택리지, 이충환 저, 이익성 옮김; 2007년 을유문화사)

나라 안 장원 중에 으뜸답기로는 영남이 제일이다. 까닭에 사대부로서 수백 년 동안 때를 만나지 못했어도 그 존귀함과 부유함이 줄지 않았다. 그 집들이 각자 한 분. 훌륭한 조상을 모시고 한 장원을 점유하여 일가끼리 살면서 흠어지지 않았으므로 집을 공묘하게 유지하여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

(자료: 김환태, <해소나 호남독립이나> 127페이지)

순암(順庵) 안정복도 그의 저서 『임관정요(臨官政要)』 풍속장에서 “경기의 풍속은 인색하고 이익만을 따르므로 마땅히 돈후와 성실로써 교화해야 하며 호서의 풍속은 방탕하고 체모를 거것으로 지으므로 마땅히 지중(持重)과 충근(忠謹)으로 교화해야 하며 호남의 풍속은 기교를 부리고 거것 성실한 체 하므로 마땅히 엄격과 성신으로써 교화해야 하며 영남의 풍속은 질박하고 예의를 좋아하므로 마땅히 순후와 예교(禮敎)로써 교화해야 하며 해서의 풍속은 강하고 사악하므로 마땅히 강의(剛毅)와 과단(果斷)으로써 교화해야 한다” 등으로 팔도의 인성과 교화방법을 기술하



3

2018년, 신정부의 출범과 전라도 개도 천년 국가기념사업과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

- 역사기록 들먹이며 전라도의 지세나 전라도인의 타고난 근성을 문제 삼지만, 전라도 혐오증은 근대화 과정에서 서울-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라인 중심의 국가주도 경제발전을 추진한데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
- 2018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차별과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함. 이를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맞이하는 전라도 개도 천년을 기념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천년동안 전라도가 경제와 문화의 국제교류 중심지로서 한반도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처럼, 개도 천년을 계기로 전라도가 동북아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밀레니엄(millennium)프로젝트가 필요



開道1000년 (1018~2018)

2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

10

밀레니엄 프로젝트 사례 (국외)

영국 밀레니엄 프로젝트 (2000)

- 1995년 밀레니엄위원회(The Millennium Commission) 구성하고, 복권을 통해 약 3조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3,000여개 프로젝트 투자
- 영국 서쪽과 템즈강 북쪽의 발전에 의해 나타난 경제/사회/문화적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템즈강 주변의 소외된 지역들을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중심에 둬으로서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동의를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21세기 런던의 발전이 템즈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균형적 도시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



하노이 국제화 프로젝트: Greak Hanoi 2030

- 베트남은 리(Ly, 李) 왕조가 탕롱(昇龍; 現하노이)을 수도로 정한 지 1000년이 되는 2010년을 기념하고, 도약적 국가발전 포부를 담는 의미에서 대대적 기념행사 개최
- 하노이 인민위원회 기획투자국 총괄 하에 경제, 사회, 문화 등 각종 분야에서 총 58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는 등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완료 또는 기념행사에 맞추어 추진계획을 발표 (Greater Hanoi 2030)
- 1000주년 기점으로 발표된 하노이 국제화 프로젝트(Great Hanoi 2030)는 광역 하노이를 기능별로 개발, 국제도시로 변모시키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기획



〈Hoa Binh Park〉

〈Hoa Binh Park〉

〈Thanh Tri Bridge〉

〈Hanoi Landmark 72〉

2

역사기념사업의 국내사례

서울 定都 600년 (1994)

- 1992년부터 예산 601억원 투입해 4개 분야 38개 사업 추진
- 서울 뿌리찾기, 서울 모습 다듬기, 문화진흥과 시민화합, 국제화와 미래화 등 4개 분야로 구성. 서울 옛모습 모형 제작, 서울학 육성, 역사문화탐방로와 타임캡슐광장, 서울시립박물관 조성 및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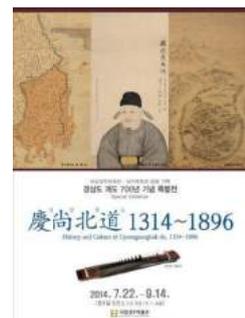
〈1394년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입성하는 천도의식 한양입성 아가행렬〉



〈서울천년타임캡슐광장〉

경상도 개도 700년 (2014)

- 경상북도와 경주, 상주가 주축이 되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
- 가장 큰 프로젝트는 개도 700주년을 기념해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하는 사업. 이와 더불어 다양한 축하행사를 개최
- 경상도 개도 700주년 기념 학술대회, 경상도 개도 700주년 기념 특 biệt전 경상도인 및 경상북도 1314~1896, 경북판타지 아리랑인 〈천년 사랑 경북의 꿈〉 공연 등이 개최되거나 제작



전라도 천년 국가기념사업 추진방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국가 차원의 준비위원회 구성

- 국가적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협력체계가 필요
- 이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의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하고, 국가가 참여하는 (가칭)전라도 개도 천년 준비위원회를 구성

국내외 홍보, 국가사업 및 메가프로젝트 공동 발굴

- 개도 천년 도래 이전에 국내외 학술대회, 프리이벤트 등 통해 개도 천년의 역사와 의미 등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국가기념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
- 전라도 개도 천년 준비위원회를 통해 공동사업을 발굴하되, 국가사업, 광역단체 공동사업, 기초단체(전주-나주) 공동사업, 지자체별 단독사업 등을 구상
- 전북발전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 기획과제를 통해 개도 천년 기념사업 및 새로운 천년을 위한 메가프로젝트를 발굴

국가사업의 2017년 대선공약화 및 2018년 新정부 국정과제화

- 전라도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발굴된 국가사업 및 메가프로젝트를 2017년 대선공약과 2018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노력
- 전라도 개도 천년의 기념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불균등 발전으로 겪어야 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추진해야 함을 홍보
- 잘못된 천년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새롭게 천년을 구상한다는 의미에서 (가칭) 전라 그랜드디자인 프로젝트(J-GDP, Grand Design Project) 전략 수립

개도천년 사업목표	천년역사 재조명으로 전라도 인식제고 및 동북아 문명가교로서 새로운 그랜드디자인 기반구축			
개도천년 사업전략	① 숨겨졌던 천년의 역사 바로 세우기 ② 전라 혐오증 해소 위한 국민인식 제고 ③ 전라 영광 재현 위한 그랜드디자인사업 ④ 동북아 문명의 가교 프로젝트			
개도천년 핵심키워드	역사시대 속 전략도	한민족 고유의 문화	바닷길과 동북아문명가교	절의와 저항, 전라도 인재

開道1000년 (1018~2018)

3 국가기념사업 (예시)

제시되는 구상사업은 아이디어 수준의 사업으로
추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 체계적 사업발굴 필요

1

개도 천년 기념사업(안)

16

전라도 개도 천년 국가기념식

- 개도 천년 지역은 전라도가 유일하며, 한민족 역사의 유구함을 세계에 알리는 목적과 전라혐오증 해소라는 국가책무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주도의 기념식을 진행**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밀레니엄프로젝트의 의미를 담고, 지역차별과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원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반영
- **전주 개최**, 또는 전주-나주 상생발전 의미에서 **두 지역 동시 개최** 방안 검토



천년 역사 바로 세우기

- 전라도 혐오증 해소 위한 국내외 학술행사, 대국민 홍보이벤트 등 추진
한민족 역사에서 전라도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국내외 학술대회 및 이벤트 개최
전라도 혐오증 해소를 위한 국민홍보(방송 등 제작), 홍보책자 발간 등
- **쑤론헬 프로젝트**
전라도 역사·정신·문화·경제·인물 등에 대한 새로운 정립 (호남학이 아닌 전라학)
국가연구기관, 전북연구기관, 전남연구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국가연구과제화



천년의 전라도 방문의 해 개최

- 국가 차원의 <2018 천년의 전라 특별 방문의 해>를 추진
전라도 역사·문화·자연을 통합 관광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 글로벌 마케팅 실시
기념식에서 특별 방문의 해를 대내외적으로 공포
- 2017년 방문의 해 추진계획(마스터플랜) 수립, 통합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통합마케팅(홍보대사 임명, 국내외 광고, 홍보이벤트), 엠블럼 제작 등 추진
지자체 축제 또는 신규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 기념행사 및 축제의 연중 진행 유도
숙박, 식당, 쇼핑 등 관광서비스 업체와의 제휴 통해 통합 관광할인혜택 등 제공



4

문화예술로 맞는 개도 천년

- 전라도의 기존 예술행사 및 문화축제에 개도 천년 의미를 담아 행사를 개최하거나 일부 행사로 개도 천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을 배치
- 개도 천년 기념 대규모 예술행사 및 문화이벤트를 개최
(예) 밀레니엄 K-POP콘서트, 제12회 광주비엔날레(2018)의 확대, 개도천년 기념 전라도 지자체 공립예술단 연합공연 제작, 전라도 연합 1,000명 풍물공연 천년 바닷길 해상공연 등



**開道1000년
(1018~2018)**

4

그랜드디자인 프로젝트 (예시)

제시되는 구상사업은 아이디어 수준의 사업으로
추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 체계적 사업발굴 필요

전라 역사 新르네상스: 묻혀 있던 왕조의 부활

전라역사의 시작 마한, 동북아교류의 중심 후백제

- 개도 천년을 맞아 한민족 역사의 한축을 담당했던 전라왕조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
쌀문명 중심지 마한은 북방민족(고조선)과 다른 한민족 고유문화 형성한 고대왕국이며, 후백제는 중국 오월과 외교관계를 맺을 정도로 동북아교류의 가교였으나 패자라는 이유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함
- **마한**: 지역문화계 숙원 <마한박물관> 건립, 사적 및 문화재지정 통해 마한 재정립
- **후백제**: 후백제 왕궁터와 성터, 완주 봉림사지터 등 안정적 발굴 및 사적지로 지정
- **마한·후백제 新르네상스프로젝트 계획 수립, 국가사업화**
발굴조사 기반, 마한과 후백제 왕도로서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왕궁과 도성 복원, 역사유물전시관 조성, 교육체험시설 조성, 관광자원화 등의 중장기계획 수립, 국가사업화



밀레니엄 상징공간 조성: 밀레니엄파크

- 개도 천년을 기념하기 미래 전라도의 비전을 상징하는 밀레니엄파크를 조성
개도 천년을 상징하는 조형물, 역사체험공간, 공연장 등 예술과 융합한 공간으로 조성
전라도 경계지역에 새롭게 조성, 또는 전주-나주의 도심재생 프로젝트 연계 각각 조성



(사례) 신라밀레니엄파크

경주시는 신라 1000년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신라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놀이동산으로 신라밀레니엄파크 조성

신라밀레니엄파크에는 신라귀족마을, 밀레니엄게이트, 에밀레 타워, 석빙고 등의 신라시대 상징물과 신라주제 공연, 어트랙션, 공예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라 **천년역사 루트** 구축

- **천년역사 상징하는 주요거점과 관광콘텐츠 연계하는 역사체험·관광 통합루트 개발**
1단계는 2018년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 자원을 발굴해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2단계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자원을 복원해 지역자원화하고
기존 거점공간 및 콘텐츠에 추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체험관광루트로 조성함
- 전라도 전체 지역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라천년역사루트 추진협의체 구성해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

(사례) 일본 역사가도(歴史街道) 프로젝트

- 교토(京都), 나라(奈良),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등의 역사도시가 있는 일본 제2경제지역간사이(關西)에는 일본 국보 50% 이상이 집약되어 역사문화 박물관과 불림
- 역사가도는 유구한 역사무대를 방문하며 일본문화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루트
- 1991년 4월 역사가도추진협의회(官 36개 단체, 民 26개 단체) 발족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을 전담
- 지역 개성과 매력 창출 위해 시정촌(市町村)별 역사테마 설정, 사업을 진행: 역사문화 활용 도로, 하천, 항만 정비 및 랜드마크 건립



천년 바닷길 연계, 전라 해안 예술회랑 조성

- **동북아 문명교류 가교이자 문명창출 중심이었던 핵심지역(바닷길, 물길, 문명거점)을 전통문화 및 예술로 연계해 21세기 동북아 문화예술 루트를 개발**
전라도 주요거점은 전통문화·예술을 매개로 도시재생을 하거나,
이미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통문화도시 및 예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길과 물길 등을 연계할 경우 독자적인 예술루트 조성이 가능
- **내륙 중심 역사루트와 별도로 해안가 및 물길을 중심으로 개발하되, 단계별로 추진**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과 이태리 리비에라 해안의 예술회랑>



국제적 메가이벤트: 농생명 박람회 개최

- 전북은 농생명산업 연구의 국가거점, 세계 농생명의 과거, 현재, 미래 방향 제시 가능
- 1단계: 국제 농생명 박람회(2020) 개최
순천만정원박람회처럼, 정부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추진
- 2단계: BIE 인증 혹은 등록 박람회로서 전주농생명박람회를 2025년 경 개최



전라정신 계승 및 전라인재 양성 프로젝트

동아시아 인재를 전라도에서 양성하는, 동아시아칼리지(College of East Asia)

- 정치적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경제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EAC) 통해 연대 강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B)이 창립, 동아시아 연대의식 가진 동아시아 엘리트 육성 필요
- 유럽에는 초국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두 개의 범유럽대학
연구중심 유럽대학원(EU, 피렌체)과 교육중심 유럽칼리지(College of Europe, 브뤼헤). 유럽칼리지는 유럽통합 전인 1949년에 민간중심으로 설립, 유럽대학원은 1976년에 개원



감사합니다!



전북발전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